

고1
공통국어1
비상(박)

2027 고1 공통국어1 비상(박영민) | 2(2) 공동체와 의사소통 직전 보강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것만은 알고 시험장에 가자!

AI 직전 보강



이번 단원에서는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나요?

이 단원에서는 ‘대화의 원리’와 ‘공동체의 담화 관습’을 실제 대화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된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유형들이 중요해.

- 협력의 원리와 공손성의 원리 적용: 제시된 대화문에서 등장인물이 어떤 격률을 지키거나 어겼는지 정확히 식별하는 문제야.
- 대화 함축의 이해: 협력의 원리를 의도적으로 위반하여 숨겨진 의도를 전달하는 ‘대화 함축’의 개념과 그 의도를 파악하는 서술형 문제가 자주 나와.



- 담화 관습의 비교: 고전 제재(『차계기환』, 『사씨남정기』)와 현대의 말하기(학생회장 연설 등)를 비교하며, 완곡하게 말하거나 겸손하게 말하기의 특징을 묻는 문제가 출제돼.

- 수필의 이해: 공선옥의 「말을 걸어 봐요」를 읽고 글쓴이의 가치관, 표현상의 특징(역설법 등), 그리고 소통의 의미를 묻는 문제도 출제돼.



그렇다면 이 단원을 공부할 때는 각 격률의 정의를 확실히 외우고, 실제 예시랑 연결하는 연습을 해야겠네요.

맞아. 특히 ‘양의 격률’(필요한 만큼만 정보 제공)과 ‘관련성의 격률’(주제에 맞는 대화)을, 그리고 공손성의 원리 중 ‘요령·관용’, ‘칭찬(찬동)·겸양’의 짝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해.



그런데 선생님, 저는 ‘공손성의 원리’ 중에서 ‘요령의 격률’과 ‘관용의 격률’, 그리고 ‘칭찬의 격률’과 ‘겸양의 격률’이 너무 헷갈려요. 그리고 ‘대화 함축’이 정확히 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이 학생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 하는 부분이지. 간단하게 정리해 줄게.

• 요령 vs 관용 (부담과 이익의 주체를 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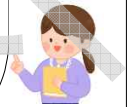
- **요령의 격률: 상대방(청자) 중심이야. 상대방에게 부담을 덜 주고, 이익을 주는 거지.**

예: “창문 좀 닫아 줄래?” “괜찮다면 창문 좀 닫아 줄 수 있니?” (O, 선택권을 줌.)

- **관용의 격률: 나(화자) 중심이야. 내 탓으로 돌리거나 내 부담을 늘리는 거야.**

예: “내가 설명을 잘 못해서 이해가 안 돼.” (X)

“내가 이해력이 부족해서 그러는데 다시 설명해 줄래?” (O, 내 탓)



• 칭찬(찬동) vs 겸양 (칭찬의 대상이 누구냐!)

- **칭찬(찬동)의 격률: 남을 칭찬하는 거야.**

예: “너 발표 진짜 잘하더라.”

- **겸양의 격률: 나를 낮추는 거야. 칭찬을 받았을 때 “아니에요, 부족해요.”라고 하는 거지.**

예: “운이 좋았을 뿐이야. 아직 배울 게 많아.”

• **대화 함축(일부러 딴청 피우기): 협력의 원리를 겉으로는 어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돌려서 말하는 고도의 소통 방식이야.**

예시: 축구부 시험 결과를 묻는데 “내 축구화 어디 갔지?”라고 딴청을 피우는 상황을 보자. 이건 관련성의 격률을 일부러 어겨서 “시험을 망쳤으니 묻지 마.”라는 의도를 숨겨서 전달한 거야. 이게 바로 대화 함축이란단다.



아, 이제 이해가 돼요! 상대방에게 선택권을 주면 요령, 내 탓을 하면 관용, 딴청 피워서 돌려 말하면 대화 함축(관련성의 격률 위반)이군요!

맞아! 추가로 『차계기환』에서 닭 대신 말을 잡아 안주를 하라는 친구의 말은 ‘완곡하게 말하기’, 『사씨남정기』나 『사소절』은 ‘겸손하게 말하기’와 ‘경칭’이라는 우리 전통 담화 관습이라는 점도 꼭 기억해 두렴.



공부할 게 조금 많은 것 같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고1
공통국어1
비상(박)

2027 고1 공통국어1 비상(박영민) | 2(2) 공동체와 의사소통 지문 분석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지문 분석

[활동1] 대화의 원리를 고려하여 대화하기

1. 다음 대화를 살펴보고, 협력의 원리를 알아보자.

화성: 동희야, 너 축구 잘해?(대화의 시작 단계로 상대방에게 정보를 요구하는 질문)
 동희: ㉠내가 전학 오기 전에 말이야. 학교에 유소년 축구 선수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내 실력을 인정해 줄 정도란다. 난 어릴 때부터 축구를 했어. 주말마다 축구 교실에 나가 꾸준히 연습을 했더니 축구를 아주 잘하게 됐지.(질문의 요점에 비해 불필요하게 긴 정보를 제공하여 양의 격률을 어김. 질문과 관련된 내용만 말하지 않고, 불필요한 내용까지 말하여 양의 격률을 어겼다는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화성: 뭐야. 결론은 축구를 잘한다는 말이잖아. 조금 이따 축구 같이 할래?
 동희: 좋아! 근데, 너 어제 축구부 입단 시험 본 건 어떻게 됐어?
 화성: ㉡(일부러 못 들은 척하며) 내가 축구화를 어디에 두었더라?(화자 자신이나 상대방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말을 해야 할 때, 협력의 원리를 의도적으로 여기기도 함. 대화 함축을 통해 시험을 잘 못 봤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전달함. 의도적으로 관련성의 격률을 어기며 시험을 잘 보지 못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전달하고 있다는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동희: (화성의 어깨를 토닥이며)(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를 위로함.) 다음에 기회가 또 있을 거야.

(1) ㉠에서 드러나는 말하기 방식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말해 보자.(예시 답안: 질문과 관련된 내용만 말하지 않고, 불필요한 내용까지 말하고 있다.)

(2) 다음 설명을 바탕으로 '동희'에게 조언할 말을 써 보자.(예시 답안: 동희야, 양의 격률에 따라 필요한 만큼만 이야기하는 게 어떠니?)

대화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서로 협력하며 대화하는 자세가 필요한데, 이를 협력의 원리라고 한다. 협력의 원리는 다음 네 가지의 격률(행위의 규범이나 윤리의 원칙)로 이루어져 있다.

- 양의 격률: 대화에서 필요한 만큼의 정보만 전달하라.(너무 많은 정보를 제공하면 대화의 독점을 초래할 수 있음.)
- 질의 격률: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내용을 전달하라.
- 관련성의 격률: 대화의 목적과 주제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라.(대화의 화제에서 벗어나는 말은 공감대 형성을 방해함.)
- 태도의 격률: 모호하거나 중의적인 표현을 피하고 간결하고 조리 있게 말하라.

(3) 협력의 원리 중, ㉡에서 '화성'이 지키지 않은 격률과 그 의도를 말해 보자.(예시 답안: 의도적으로 관련성의 격률을 어기며 축구부 입단 시험을 잘 보지 못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2. 다음 글을 읽고, **공손성의 원리**(공손성의 원리를 이루는 격률: ① 요령의 격률 ② 관용의 격률 ③ 칭찬의 격률 ④ 겸양의 격률 ⑤ 동의의 격률)를 고려하며 대화를 구성해 보자.

대화를 할 때는 언어 예절을 잘 지켜야 상대방과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대화의 원리로는 공손성의 원리가 있다. 공손성의 원리란 자신의 말이 상대방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예의 있게 말하는 태도를 말한다.

[공손성의 원리에 따르면, 대화를 할 때는 상대방이 부담스럽지 않게 상대방에게 선택권을 주거나 자신의 뜻으로 돌려 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대방을 비방하기보다는 칭찬하는 말을 하고 자신을 낮추어 겸손하게 말하되 상대방과 의견이 다르더라도 일단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 주고 나서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이 좋다.]([] : 공손성의 원리를 고려한 대화 방법)

- 박재현, 『국어 교육을 위한 의사소통 이론』

(1) ㉠과 ㉡의 대화 상황을 고려하여 공손성의 원리에 알맞은 말을 써 보자.

㉠ 친구에게 에어컨을 꺼 달라고 부탁하는 상황(예시 답안: 내가 오늘 몸 상태가 안 좋아서 그런데, 에어컨을 좀 꺼줄 수 있겠니?(관용의 격률). 자신의 뜻으로 돌려 말하고 있음. **자신의 뜻으로 돌려 말하는 관용의 격률을 활용해야 한다는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 발표를 잘한다고 선생님께 칭찬을 받은 상황(예시 답안: 아직 저는 많이 부족해요. 선생님께서 좋게 봐 주신 덕분이예요.(겸양의 격률). 자신에 대한 칭찬을 최소화함. **자신에 대한 칭찬을 최소화하고 비방을 최대화하는 겸양의 격률을 활용해야 한다는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2) 공손성의 원리를 고려하여 다음 두 친구의 대화를 바꾸어 보자.(예시 답안: 여학생-정후야, 내일 별일 없으면 나랑 옷 구경하러 갈래? 내가 옷 추천해 줄게. 너는 키가 커서 어떤 옷이든 다 잘 어울리겠다. 상하의 색 조합만 조금 더 신경 쓰면 좋을 것 같아.(칭찬의 격률) / 남학생-오, 정말 좋은 생각이야! 그런데 곧 시험이니까 시험 끝나고 가는 게 어때?(동의의 격률))

여학생: 정후야, 내일 별일 없으면 나랑 네 옷 좀 사러 가는 게 어때? **너는 맨날 너랑 안 어울리는 옷만 입는 것 같아. 옷이 그게 뭐야.**(상대방을 비방하여 칭찬의 격률과 체면 유지의 원리를 모두 어김. **상대방을 비방하여 칭찬의 격률과 체면 유지의 원리를 어겼다는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남학생: 싫어. 곧 시험인데 어딜 가냐? 난 집에서 공부할 거야. 너나 가.

3. 다음 만화를 보고, 체면 유지의 원리를 알아보자.

선배 선수: 애들아, 오늘 경기는 졌지만, 앞으로 남은 경기에 집중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힘내자!

후배 선수: **선배가 결정적인 순간마다 실수만 하지 않았어도 오늘 경기에서 이겼을걸요?**(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의 잘못을 직접적으로 지적하여 체면을 손상시킴.)

(1) 다음 설명을 참고하여 '선배'가 느꼈을 감정과 그 이유를 말해 보자.('선배'는 서운함, 당혹스러움 등 부정적인 감정을 느꼈을 것이다. 그 이유는 '후배'가 남은 경기에 집중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 보자는 '선배'의 요청을 무시하고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선배'의 잘못을 지적해 '선배'의 체면이 손상되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바라는 자아의 모습을 인정받고 그것이 손상되지 않도록 지키기를 바라는데, 이것을 체면이라고 한다. 사람들은 자신의 체면을 존중받으면 자신감과 같은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지만, 체면이 손상되면 당혹감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느낀다. 그러므로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는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의 요청을 단칼에 거절하거나 잘못을 지적하는 등 상대방의 체면을 위협할 수 있는 말이나 행동을 되도록 피해야 한다. 이것을 **체면 유지의 원리**(상대방이 바라는 자아상을 존중하고 보호해 주는 원리)라고 하는데, 이 원리에 따르면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강요하는 표현을 삼가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체면 유지의 원리를 고려한 대화 방법)

- 이창덕 외, 『화법 교육론』

(2) **체면 유지의 원리를 고려하여 후배 선수의 말을 바꾸어 보자.**(선배가 이번 경기에서 주장으로서 보여 준 지도력이 인상 깊었어요. 저희도 더욱 열심히 훈련할 테니 선배도 조금만 더 집중해 주시면 팀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문 분석

[활동 2] 공동체의 담화 관습 성찰하기

1. 다음 글과 속담에 드러나는 담화 관습을 알아보자.

(1) 다음 글의 글쓴이가 ‘듣기’와 관련하여 조언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말해 보자.

• **남의 말을 들을 때는 번거롭고 시끄럽다고 해도 정신을 정돈하여 그 대략을 잘 기억할 것이며, 함부로 들어 넘기지 말도록 할 것이다.**(상대의 말에 집중하며 끝까지 경청하라. 경청과 가려듣기의 전통적 담화 관습.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되 필요한 내용만을 가려들어야 하는 ‘경청과 가려듣기’ 담화 관습과 관련지어 볼 수 있다는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 **음란한 말, 도리에 어긋난 말, 허망한 말, 남을 헐뜯는 말, 잘 속이는 말, 가혹한 말, 과장된 말, 원한의 말을 들으면 절대로 대답해서는 안 된다. 마땅히 조금씩 뒤로 물러날 것이다.**(불필요한 말을 듣지 말고 필요한 말만 골라 들어라.)

- 이덕무, 『사소절』

(2) 다음 속담 뜻을 찾아보고, ‘말하기’와 관련하여 속담이 주는 교훈을 말해 보자.(예시 답안: 불필요한 말을 삼가며 항상 말조심해야 함.)

● **말이 씨가 된다**(늘 말하던 것이 사실대로 되었을 때를 이르는 말.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신중하게 말하기의 담화 관습. 불필요한 말을 삼가고 말조심해야 하는 ‘신중하게 말하기’ 담화 관습과 관련지어 볼 수 있다는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아무도 안 듣는 데서라도 말조심해야 한다는 말.)

(3) (1)과 (2)의 활동에서 알 수 있는 담화 관습을 정리해 보자.(예시 답안: 경청과 가려듣기, 신중하게 말하기)

2. 다음 고전 문학에 반영된 담화 관습을 알아보자.

(가) 김 선생은 담소를 즐겨 하였다.
 그가 일찍이 벗의 집을 찾아간 적이 있었다. [주인은 술상을 내오되 안주는 단지 채소뿐이라며 먼저 사과부터 하는 것이었다.]([]: 인색한 대접과 그에 대한 변명. 손님에게 겸손함을 표현하는 주인의 태도)
 “집은 가난하고 시장마저 멀다네. 맛있는 음식일랑 전혀 없고 담박한 것뿐이네. 그저 부끄러울 따름일세.”
 그때 마침 한 무리의 닭들이 마당에서 어지럽게 모이를 쪼고 있었다.
 김 선생이 그를 보며 말하였다.
“대장부는 천금도 아까워하지 않는 법이네. 내 말을 잡아 안주를 장만하게.”(주인의 거짓말에 재치 있게 대응하며 닭을 내오라는 의도를 담음.)
 “하나뿐인 말을 잡으라니, 무엇을 타고 돌아가겠다는 말인가?”
“닭을 빌려 타고 가려네.”(재치와 익살로 자신의 생각을 돌려 말함. 직설적인 비난을 피하고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완곡하게 말하기의 관습. 직설적인 표현은 삼가고 간접적으로 돌려 말하는 ‘완곡하게 말하기’ 담화 관습과 관련지어 볼 수 있다는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김 선생의 대답에 **주인은 크게 웃고서**(‘김 선생’의 대답에 담긴 의미를 알아챈.) 닭을 잡아 대접하였다.
 - 서거정, 「차계기환」

(나) 유 소사가 지현에게 부탁하여 유모를 통해 사 소저에게 청혼의 뜻을 전하고 답변을 듣는 상황 유모는 집 안으로 들어갔다 곧 다시 나와 부인의 말씀을 전했다.
 [“노야께서 소녀의 혼사를 위해 **누실로 왕립하시니 참으로 황공합니다.**(상대를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어휘를 사용하여 겸손하게 말하기의 관습을 드러냄. 상대방에 대한 예의의 표시로 자기를 낮추어 말하는 ‘겸손하게 말하기’ 담화 관습과 관련지어 볼 수 있다는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말씀하신 유 소사 님과의 혼사는 다만 감당하지 못할까 두려울 따름입니다. 어찌 명을 어길 수 있겠습니까?”]([]: 상대방을 높이고 자신을 낮춤. → 겸손하게 말하기)
 지현은 기뻐하며 돌아가 유 소사에게 편지로 통지했다. 소사도 크게 기뻐하며 **길일**(운이 좋거나 상스러운 날)을 택했다.
 - 김만중, 「사씨남정기」

(1) (가)의 ‘김 선생’과 (나)의 ‘부인’의 말에 담긴 의도가 무엇인지 말해 보자.(예시 답안: (가)의 ‘김 선생’의 의도-닭을 요리하여 대접해 달라. (나)의 ‘부인’의 의도-집까지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다./청혼의 뜻을 감사히 받아들이겠다.)

(2) (가)의 ‘김 선생’과 (나)의 ‘부인’의 말하기 방식에서 드러나는 담화 관습을 정리해 보자.(예시 답안: (가) 완곡하게 말하기(돌려 말하기) / (나) 겸손하게 말하기)

3. 다음 두 학생의 말하기 방식을 바탕으로 과거와 현재의 담화 관습을 비교해 보자.

(가) [저는 저를 믿어 주는 친구들의 지지와 응원 덕분에 학생회 임원으로 오래 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겸손한 태도로 예의 바른 인상을 주지만 자신감이 부족해 보일 수 있음. 자신을 낮추고 공을 돌리는 겸손한 말하기로 상대방에게 예의 바른 느낌을 줄 수 있다는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성실한 자세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겸손하고 경청하는 자세로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저는 중학생 때부터 학생회 임원으로 활동하면서 학생회 운영 경험이 풍부합니다. 그리고 빠른 결단력과 적극적인 추진력으로 문제 상황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준비된 저를 학생회장으로 뽑아 주세요. 그 누구보다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명확히 전달하여 유능해 보이지만 자칫 거만해 보일 수 있음. 자신의 능력과 장점을 명확하고 직접적으로 드러내어 유능하고 자신감 있는 느낌을 준다는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1) **자신이 학생회장 후보로 나간다면 (가)와 (나)의 말하기 방식 중 어느 것을 선택할지 그 이유와 함께 말해 보자.**(예시 답안: (가) 말하기 방식에 겸손함이 느껴져서 정직하고 성실한 학생으로 보인다. / (나) 말하기 방식에서 자신감이 느껴져서 회장직을 수행할 전문성이 있어 보인다.)

(2) **(가)와 (나)에 나타난 담화 관습의 장단점을 정리해 보자.**(예시 답안: (가) 장점-상대방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고 예의가 바른 느낌을 줄 수 있다. (가) 단점-자신감이 부족해 보이고 상대방이 말하는 이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왜곡하여 이해할 수 있다. / (나) 장점-자신의 주장과 능력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 유능하다는 인상을 준다. 그리고 불필요한 미사여구가 없어 의미가 명확하다. (나) 단점-거만한 느낌을 주어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다.)

4. **다음 자료에서 알 수 있는 오늘날 담화 관습의 특징을 생각해 보고,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해 보자.**(예시 답안: 요즘에는 이모티콘, 신조어, 외래어, 줄임말 등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다. 이러한 다양한 표현은 내 생각이나 느낌을 쉽고 빠르게 전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한편 상대방에 따라 소통에 방해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우리 반 게시판	제목: 첫 자작곡 개시! 솔직한 평가 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습 자료실 학습 결과물 제출 학습 토론방 질문 있어요 <li style="background-color: #0070C0; color: white; padding: 2px;">자유 게시판 	<p>애들아, 안녕? 난 게임 음악 작곡가가 꿈이야. 내가 피아노로 연주해서 자작곡을 만들어 봤는데, 어때?</p>
	<p>댓글 98</p> <p>1반 모범생 우아! 대박인걸? 이미 작곡가 포스 철철.</p> <p>방구석 전문가 이 친구 피아노 연습을 좀 더 해야 할 듯. ㅋㅋ ㅋ 연습해서 다시 오셈.^^</p> <p>응원 로봇 여보세요? 여기 게임 속 아닌가요? 너무 실감 나서 이미 게임을 하고 있는 줄!</p>
사용자	

5. **오늘날 우리의 담화 관습을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 써 보자.**(예시 답안: 상대방의 입장과 처지를 고려하여 완곡하게 말하는 연습을 한다.)

고1
공통국어1
비상(박)

2027 고1 공통국어1 비상(박영민) | 2(2) 공동체와 의사소통 지문 확인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지문 확인

[활동1] 대화의 원리를 고려하여 대화하기

1. 다음 대화를 살펴보고, 협력의 원리를 알아보자.

화성: 동희야, 너 축구 잘해?(대화의 ____ 단계로 상대방에게 ____를 요구하는 질문)
 동희: ㉠내가 전학 오기 전에 말이야. 학교에 유소년 축구 선수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내 실력을 인정해 줄 정도란다. 난 어릴 때부터 축구를 했어. 주말마다 축구 교실에 나가 꾸준히 연습을 했더니 축구를 아주 잘하게 됐지.(질문의 ____에 비해 불필요하게 ____ 정보를 제공하여 ____의 격률을 어김. 질문과 관련된 내용만 말하지 않고, 불필요한 내용까지 말하여 양의 격률을 어겼다는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화성: 뭐야. 결론은 축구를 잘한다는 말이잖아. 조금 이따 축구 같이 할래?
 동희: 좋아! 근데, 너 어제 축구부 입단 시험 본 건 어떻게 됐어?
 화성: ㉡(일부러 못 들은 척하며) 내가 축구화를 어디에 두었더라?(화자 자신이나 상대방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말을 해야 할 때, 협력의 원리를 ____으로 어기기도 함. ____을 통해 시험을 잘 못 봤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전달함. 의도적으로 관련성의 격률을 어기며 시험을 잘 보지 못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전달하고 있다는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동희: (화성의 어깨를 토닥이며)(____적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를 위로함.) 다음에 기회가 또 있을 거야.

(1) ㉠에서 드러나는 말하기 방식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말해 보자.(예시 답안: ____과 관련된 내용만 말하지 않고, ____내용까지 말하고 있다.)

(2) 다음 설명을 바탕으로 '동희'에게 조언할 말을 써 보자.(예시 답안: 동희야, ____의 격률에 따라 필요한 만큼만 이야기하는 게 어떠니?)

대화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서로 협력하며 대화하는 자세가 필요한데, 이를 협력의 원리라고 한다. 협력의 원리는 다음 네 가지의 격률(행위의 ____이나 윤리의 원칙)로 이루어져 있다.

- 양의 격률: 대화에서 필요한 만큼의 정보만 전달하라.(너무 ____ 정보를 제공하면 대화의 ____을 초래할 수 있음.)
- 질의 격률: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내용을 전달하라.
- 관련성의 격률: 대화의 목적과 주제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라.(대화의 ____에서 벗어나는 말은 ____형성을 방해함.)
- 태도의 격률: 모호하거나 중의적인 표현을 피하고 간결하고 조리 있게 말하라.

(3) 협력의 원리 중, ㉡에서 '화성'이 지키지 않은 격률과 그 의도를 말해 보자.(예시 답안: 의도적으로 ____성의 격률을 어기며 축구부 입단 시험을 잘 보지 못했다는 것을 ____으로 전달하고 있다.)

2. 다음 글을 읽고, **공손성의 원리**(공손성의 원리를 이루는 격률: ① _____의 격률 ② _____의 격률 ③ _____의 격률 ④ _____의 격률 ⑤ _____의 격률)를 고려하며 대화를 구성해 보자.

대화를 할 때는 언어 예절을 잘 지켜야 상대방과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대화의 원리로는 공손성의 원리가 있다. 공손성의 원리란 자신의 말이 상대방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예의 있게 말하는 태도를 말한다.

[공손성의 원리에 따르면, 대화를 할 때는 상대방이 부담스럽지 않게 상대방에게 선택권을 주거나 자신의 탓으로 돌려 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대방을 비방하기보다는 칭찬하는 말을 하고 자신을 낮추어 겸손하게 말하되 상대방과 의견이 다르더라도 일단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 주고 나서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이 좋다.]([] : _____의 원리를 고려한 대화 방법)

- 박재현, 『국어 교육을 위한 의사소통 이론』

(1) ㉠과 ㉡의 대화 상황을 고려하여 공손성의 원리에 알맞은 말을 써 보자.

㉠ 친구에게 에어컨을 꺼 달라고 부탁하는 상황(예시 답안: 내가 오늘 몸 상태가 안 좋아서 그런데, 에어컨을 좀 꺼줄 수 있겠니?(_____의 격률). 자신의 _____으로 돌려 말하고 있음. **자신의 탓으로 돌려 말하는 관용의 격률을 활용해야 한다는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 발표를 잘한다고 선생님께 칭찬을 받은 상황(예시 답안: 아직 저는 많이 부족해요. 선생님께서 좋게 봐 주신 덕분이예요.(_____의 격률). 자신에 대한 칭찬을 _____함. **자신에 대한 칭찬을 최소화하고 비방을 최대화하는 겸양의 격률을 활용해야 한다는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2) 공손성의 원리를 고려하여 다음 두 친구의 대화를 바꾸어 보자.(예시 답안: 여학생-정후야, 내일 별일 없으면 나랑 옷 구경하러 갈래? 내가 옷 추천해 줄게. 너는 키가 커서 어떤 옷이든 다 잘 어울리겠다. 상하의 색 조합만 조금 더 신경 쓰면 좋을 것 같아.(_____의 격률) / 남학생-오, 정말 좋은 생각이야! 그런데 곧 시험이니까 시험 끝나고 가는 게 어때?(_____의 격률))

여학생: 정후야, 내일 별일 없으면 나랑 네 옷 좀 사러 가는 게 어때? **너는 맨날 너랑 안 어울리는 옷만 입는 것 같아. 옷이 그게 뭐야.**(상대방을 _____하여 _____의 격률과 _____의 원리를 모두 어김. **상대방을 비방하여 _____의 격률과 _____의 원리를 어겼다는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남학생: 싫어. 곧 시험인데 어딜 가냐? 난 집에서 공부할 거야. 너나 가.

3. 다음 만화를 보고, 체면 유지의 원리를 알아보자.

선배 선수: 애들아, 오늘 경기는 졌지만, 앞으로 남은 경기에 집중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힘내자!

후배 선수: **선배가 결정적인 순간마다 실수만 하지 않았어도 오늘 경기에서 이겼을걸요?**(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의 잘못을 _____으로 _____하여 _____을 손상시킴.)

(1) 다음 설명을 참고하여 '선배'가 느꼈을 감정과 그 이유를 말해 보자.('선배'는 서운함, 당혹스러움 등 _____인 감정을 느꼈을 것이다. 그 이유는 '후배'가 남은 경기에 집중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 보자는 '선배'의 요청을 무시하고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선배'의 잘못을 지적해 '선배'의 _____이 _____되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바라는 자아의 모습을 인정받고 그것이 손상되지 않도록 지키기를 바라는데, 이것을 체면이라고 한다. 사람들은 자신의 체면을 존중받으면 자신감과 같은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지만, 체면이 손상되면 당혹감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느낀다. 그러므로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는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의 요청을 단칼에 거절하거나 잘못을 지적하는 등 상대방의 체면을 위협할 수 있는 말이나 행동을 되도록 피해야 한다. 이것을 **체면 유지의 원리**(상대방이 바라는 자아상을 존중하고 ____해 주는 원리)라고 하는데, 이 원리에 따르면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강요하는 표현을 삼가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____의 원리를 고려한 대화 방법)

- 이창덕 외, 『화법 교육론』

(2) **체면 유지의 원리를 고려하여 후배 선수의 말을 바꾸어 보자.**(선배가 이번 경기에서 주장으로서 보여 준 지도력이 인상 깊었어요. 저희도 더욱 열심히 훈련할 테니 선배도 조금만 더 집중해 주시면 팀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문 확인

[활동 2] 공동체의 담화 관습 성찰하기

1. 다음 글과 속담에 드러나는 담화 관습을 알아보자.

(1) 다음 글의 글쓴이가 ‘듣기’와 관련하여 조언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말해 보자.

• **남의 말을 들을 때는 번거롭고 시끄럽다고 해도 정신을 정돈하여 그 대략을 잘 기억할 것이며, 함부로 들어 넘기지 말도록 할 것이다.**(상대의 말에 집중하며 끝까지 ____하라. ____과 ____의 전통적 담화 관습.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되 필요한 내용만을 가려들어야 하는 ‘____과 ____’ 담화 관습과 관련지어 볼 수 있다는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 **음란한 말, 도리에 어긋난 말, 허망한 말, 남을 헐뜯는 말, 잘 속이는 말, 가혹한 말, 과장된 말, 원한의 말을 들으면 절대로 대답해서는 안 된다. 마땅히 조금씩 뒤로 물러날 것이다.**(불필요한 말을 듣지 말고 필요한 말만 ____들어라.)

- 이덕무, 『사소절』

(2) 다음 속담 뜻을 찾아보고, ‘말하기’와 관련하여 속담이 주는 교훈을 말해 보자.(예시 답안: 불필요한 말을 삼기며 항상 ____해야 함.)

● **말이 씨가 된다**(늘 말하던 것이 ____대로 되었을 때를 이르는 말.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신중하게 말하기의 담화 관습. 불필요한 말을 삼가고 말조심해야 하는 ‘____게 말하기’ 담화 관습과 관련지어 볼 수 있다는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아무도 안 듣는 데서라도 ____해야 한다는 말.)

(3) (1)과 (2)의 활동에서 알 수 있는 담화 관습을 정리해 보자.(예시 답안: ____과 ____, ____게 말하기)

2. 다음 고전 문학에 반영된 담화 관습을 알아보자.

(가) 김 선생은 담소를 즐겨 하였다.
 그가 일찍이 벗의 집을 찾아간 적이 있었다. [주인은 술상을 내오되 안주는 단지 채소뿐이라며 먼저 사과부터 하는 것이었다.]([] : _____한 대접과 그에 대한 변명. 손님에게 _____을 표현하는 주인의 태도)
 “집은 가난하고 시장마저 멀다네. 맛있는 음식일랑 전혀 없고 담박한 것뿐이네. 그저 부끄러울 따름일세.”
 그때 마침 한 무리의 닭들이 마당에서 어지럽게 모이를 쪼고 있었다.
 김 선생이 그를 보며 말하였다.
“대장부는 천금도 아까워하지 않는 법이네. 내 말을 잡아 안주를 장만하게.”(주인의 거짓말에 있게 대응하며 _____을 내오라는 의도를 담음.)
 “하나뿐인 말을 잡으라니, 무엇을 타고 돌아가겠다는 말인가?”
“닭을 빌려 타고 가려네.”(재치와 익살로 자신의 생각을 _____말함. 직설적인 _____을 피하고 _____으로 표현하는 _____게 말하기의 관습. _____인 표현은 삼가고 _____으로 돌려 말하는 ‘완곡하게 말하기’ 담화 관습과 관련지어 볼 수 있다는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김 선생의 대답에 **주인은 크게 웃고서**(‘김 선생’의 대답에 담긴 의미를 알아챈.) 닭을 잡아 대접하였다.
 - 서거정, 「차계기환」

(나) 유 소사가 지현에게 부탁하여 유모를 통해 사 소저에게 청혼의 뜻을 전하고 답변을 듣는 상황 유모는 집 안으로 들어갔다 곧 다시 나와 부인의 말씀을 전했다.
 [“노야께서 소녀의 혼사를 위해 **누실로 왕립하시니 참으로 황공합니다.**(상대를 _____고 자신을 _____는 어휘를 사용하여 _____말하기의 관습을 드러냄. 상대방에 대한 예의의 표시로 자기를 낮추어 말하는 ‘겸손하게 말하기’ 담화 관습과 관련지어 볼 수 있다는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말씀하신 유 소사 님과의 혼사는 다만 감당하지 못할까 두려울 따름입니다. 어찌 명을 어길 수 있겠습니까?”]([] : 상대방을 _____고 자신을 _____로 → _____말하기)
 지현은 기뻐하며 돌아가 유 소사에게 편지로 통지했다. 소사도 크게 기뻐하며 **길일**(운이 좋거나 상스러운 날)을 택했다.
 - 김만중, 「사씨남정기」

(1) (가)의 ‘김 선생’과 (나)의 ‘부인’의 말에 담긴 의도가 무엇인지 말해 보자.(예시 답안: (가)의 ‘김 선생’의 의도-담을 요리하여 _____해 달라. (나)의 ‘부인’의 의도-집까지 찾아와 주셔서 _____하다./ _____의 뜻을 감사히 받아들이겠다.)

(2) (가)의 ‘김 선생’과 (나)의 ‘부인’의 말하기 방식에서 드러나는 담화 관습을 정리해 보자.(예시 답안: (가) _____게 말하기(돌려 말하기) / (나) _____게 말하기)

3. 다음 두 학생의 말하기 방식을 바탕으로 과거와 현재의 담화 관습을 비교해 보자.

(가) [저는 저를 믿어 주는 친구들의 지지와 응원 덕분에 학생회 임원으로 오래 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 _____태도로 예의 바른 인상을 주지만 자신감이 _____해 보일 수 있음. 자신을 낮추고 공을 돌리는 _____한 말하기로 상대방에게 예의 바른 느낌을 줄 수 있다는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성실한 자세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겸손하고 경청하는 자세로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저는 중학생 때부터 학생회 임원으로 활동하면서 학생회 운영 경험이 풍부합니다. 그리고 빠른 결단력과 적극적인 추진력으로 문제 상황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준비된 저를 학생회장으로 뽑아 주세요. 그 누구보다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 자신의 능력을 _____히 전달하여 _____해 보이지만 자칫 _____해 보일 수 있음. 자신의 능력과 장점을 명확하고 직접적으로 드러내어 유능하고 자신감 있는 느낌을 준다는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1) **자신이 학생회장 후보로 나간다면 (가)와 (나)의 말하기 방식 중 어느 것을 선택할지 그 이유와 함께 말해 보자.**(예시 답안: (가) 말하기 방식에 _____이 느껴져서 정직하고 성실한 학생으로 보인다. / (나) 말하기 방식에서 _____이 느껴져서 회장직을 수행할 전문성이 있어 보인다.)

(2) **(가)와 (나)에 나타난 담화 관습의 장단점을 정리해 보자.**(예시 답안: (가) 장점-상대방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고 _____가 바른 느낌을 줄 수 있다. (가) 단점-자신감이 _____해 보이고 상대방이 말하는 이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_____하여 이해할 수 있다. / (나) 장점-자신의 주장과 능력을 _____하게 전달할 수 있어 _____하다는 인상을 준다. 그리고 불필요한 미사여구가 없어 의미가 명확하다. (나) 단점-_____느낌을 주어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다.)

4. **다음 자료에서 알 수 있는 오늘날 담화 관습의 특징을 생각해 보고,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해 보자.**(예시 답안: 요즘에는 이모티콘, 신조어, 외래어, 줄임말 등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다. 이러한 다양한 표현은 내 생각이나 느낌을 쉽고 빠르게 전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한편 상대방에 따라 소통에 _____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우리 반 게시판	제목: 첫 자작곡 개시! 솔직한 평가 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습 자료실 학습 결과물 제출 학습 토론방 질문 있어요 <li style="background-color: #ADD8E6;">자유 게시판 	<p>애들아, 안녕? 난 게임 음악 작곡가가 꿈이야. 내가 피아노로 연주해서 자작곡을 만들어 봤는데, 어때?</p>
	<p>댓글 98</p> <p>1반 모범생 우아! 대박인걸? 이미 작곡가 포스 철철.</p> <p>방구석 전문가 이 친구 피아노 연습을 좀 더 해야 할 듯. ㅋㅋ ㅋ 연습해서 다시 오셈.^^</p> <p>응원 로봇 여보세요? 여기 게임 속 아닌가요? 너무 실감 나서 이미 게임을 하고 있는 줄!</p>
사용자	

5. **오늘날 우리의 담화 관습을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 써 보자.**(예시 답안: 상대방의 입장과 처지를 고려하여 _____게 말하는 연습을 한다.)

고1
공통국어1
비상(박)

2027 고1 공통국어1 비상(박영민) | 2(2) 공동체와 의사소통 내신 암기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암기용

1. 대화의 원리

협력의 원리	대화의 목적에 맞게 서로 협력해야 함.
공손성의 원리	정중한 표현을 사용하여 예절 바르게 말해야 함.
체면 유지의 원리	상대방의 체면에 위협을 가하는 표현을 피해야 함.

3. 공손성의 원리를 이루는 격률

요령의 격률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을 최소화하고 이익이 되는 표현을 최대화함.
관용의 격률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표현을 최소화하고 부담이 되는 표현을 최대화함.
칭찬의 격률	상대방에 대한 비난을 최소화하고 칭찬을 최대화함.
겸양의 격률	자신에 대한 칭찬을 최소화하고 비난을 최대화함.
동의의 격률	상대방과 자신의 의견 불일치를 최소화하고 일치점을 최대화함.

2. 협력의 원리를 이루는 격률

양의 격률	대화에서 필요한 만큼의 정보만 전달함.
질문의 격률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내용을 전달함.
관련성의 격률	대화의 목적과 주제에 맞는 정보를 제공함.
태도의 격률	모호하거나 중의적인 표현을 피하고 간결하고 조리 있게 말함.

4. 「차계기환」 / 「사씨남정기」 제재 개관

	차계기환	사씨남정기
갈래	설화	국문 소설, 가정 소설
성격	풍자적, 해학적	풍간적
소재	친구의 인색한 대접	처첩 간의 갈등
주제	인색한 대접에 대한 재치 있는 지적	처첩 간의 갈등과 사씨의 고행, 권선징악

5. 「말을 걸어 봐요」 제재 개관

갈래	현대 수필
성격	개성적 , 고백적
소재	의사소통 문화
주제	이타적인 소통 문화의 가치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적인 경험에서 소통의 가치를 발견함. • 역설적인 표현이 드러남.

7. 오늘날 우리의 담화 관습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

- **개성**을 존중하되, 타인을 **배려**하는 **언어생활**을 함.
- 상대방의 **입장**과 **처지**를 고려하여 **완곡**하게 말하는 연습을 함.

6. 공동체의 담화 관습

우리말의 담화 관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곡하게 말하기: 직설적인 표현은 삼가고 간접적으로 돌려 말함. • 겸손하게 말하기: 상대방에 대한 예의의 표시로 자기를 낮추어 말함. • 신중하게 말하기: 불필요한 말을 삼가고 필요한 내용만 말함. • 경청과 가려듣기: 상대방의 말을 가로채지 않고 끝까지 듣되 필요한 내용만을 가려들음.
-------------------	--

↓
과거의 담화 관습을 바탕으로 오늘날의 언어생활을 **성찰**하되 비판적으로 **수용**하여 오늘날의 사회·문화적 맥락에 맞게 **개선**해야 함.

8. 「말을 걸어 봐요」에 나타난 글쓴이의 경험

유년 시절의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릴 적 엄마가 동네 아이들에게 먼저 다가가 말을 건네는 모습을 보며 자람. • 보따리장수들에게 먼저 호의를 베푸는 고향의 이타적인 문화 속에서 성장해 옴. 	
	도시에서의 경험	시골에서의 경험
성인이 된 이후의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엘리베이터에서 아이에게 말을 걸었으나 아이가 엄마 뒤로 숨자 무안함을 느낌. • 몇 번 얼굴을 마주친 사람들에게 먼저 인사를 건넸으나 어색한 침묵이 이어져 사는 게 재미없다고 느낌. 	시골 마을을 유람했을 때, 버스 승객과 노인들이 먼저 말 을 걸고 떡 을 긋 을 주자 생동감 을 느낌.

9. 「말을 걸어 봐요」의 글쓴이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의사소통 문화

글쓴이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의사소통 문화



혼자 **단절된** 삶을 사는 것보다 **주변** 사람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상호 존중**하며 서로의 **감정과 생각**을 나누는 삶이 더 **행복**함.

나무아카데미 배너포스팅

TEST 3단계

1. 대화의 원리

□□의 원리	대화의 □□에 맞게 서로 □□해야 함.
□□□의 원리	□□한 표현을 사용하여 □□ 바르게 말해야 함.
□□ 유지의 원리	상대방의 □□에 위협을 가하는 표현을 피해야 함.

3. 공손성의 원리를 이루는 격률

□□의 격률	상대방에게 □□이 되는 표현을 최소화하고 □□이 되는 표현을 최대화함.
□□의 격률	자신에게 □□이 되는 표현을 최소화하고 □□이 되는 표현을 최대화함.
□□의 격률	상대방에 대한 □□을 최소화하고 □□을 최대화함.
□□의 격률	자신에 대한 □□을 최소화하고 □□을 최대화함.
□□의 격률	상대방과 자신의 의견 □□□를 최소화하고 □□를 최대화함.

2. 협력의 원리를 이루는 격률

□의 격률	대화에서 □□□ □□의 □□만 전달함.
□의 격률	□□한 근거를 바탕으로 □□이라고 생각하는 내용을 전달함.
□□□의 격률	대화의 □□과 □□에 맞는 정보를 제공함.
□□의 격률	□□하거나 □□적인 표현을 피하고 □□하고 조리 있게 말함.

4. 「차계기환」 / 「사씨남정기」 제재 개관

	차계기환	사씨남정기
갈래	□□	국문 소설, □□ 소설
성격	□□적, □□적	□□적
소재	친구의 □□한 대접	□□ 간의 갈등
주제	□□한 대접에 대한 □□ 있는 지적	□□ 간의 갈등과 사씨의 고행, □□□□

5. 「말을 걸어 봐요」 제재 개관

갈래	현대 □□
성격	□□적, □□적
소재	□□□□ 문화
주제	□□□□인 □□ 문화의 가치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인 경험에서 □□의 가치를 발견함. • □□□□인 표현이 드러남.

7. 오늘날 우리의 담화 관습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

- □□을 존중하되, 타인을 □□하는 □□□□을 함.
- 상대방의 □□과 □□를 고려하여 □□하게 말하는 연습을 함.

6. 공동체의 담화 관습

우리말의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게 말하기: 직설적인 표현은 삼가고 □□□□으로 돌려 말함. • □□하게 말하기: 상대방에 대한 예의의 표시로 자기를 □□□□ 말함. • □□하게 말하기: 불필요한 말을 삼가고 □□□□ 내용만 말함. • □□과 □□□□: 상대방의 말을 가로채지 않고 □□까지 듣되 □□한 내용만을 가려들음.
------------	--

과거의 담화 관습을 바탕으로 오늘날의 언어생활을 □□하되 비판적으로 □□하여 오늘날의 사회·문화적 맥락에 맞게 □□해야 함.

8. 「말을 걸어 봐요」에 나타난 글쓴이의 경험

유년 시절의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릴 적 □□가 동네 아이들에게 □□□□ □□□□을 건네는 모습을 보며 자람. • 보따리장수들에게 □□ □□를 베푸는 고향의 □□□□인 문화 속에서 □□해 옴. 	
	도시에서의 경험	시골에서의 경험
성인이 된 이후의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엘리베이터에서 아이에게 말을 걸었으나 □□가 엄마 뒤로 숨자 □□□□을 느낌. • 몇 번 얼굴을 마주친 사람들에게 □□ □□를 건넸으나 □□□□□□이 이어져 사는 게 □□□□고 느낌. 	시골 마을을 유람했을 때, 버스 승객과 노인들이 □□□□을 걸고 □□□□을 주자 □□□□을 느낌.

9. 「말을 걸어 봐요」의 글쓴이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의사소통 문화

글쓴이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의사소통 문화



혼자 □□된 삶을 사는 것보다 □□ □□들과
끊임없이 □□하고 □□ □□하며 서로의 □□과
□□을 나누는 삶이 더 □□함.

나무아카데미 배움포럼

TEST 4단계

1. 대화의 원리

___의 원리	대화의 ___에 맞게 서로 ___해야 함.
___의 원리	___한 표현을 사용하여 ___바르게 말해야 함.
___유지의 원리	상대방의 ___에 위협을 가하는 표현을 피해야 함.

3. 공손성의 원리를 이루는 격률

___의 격률	상대방에게 ___이 되는 표현을 최소화하고 ___이 되는 표현을 최대화함.
___의 격률	자신에게 ___이 되는 표현을 최소화하고 ___이 되는 표현을 최대화함.
___의 격률	상대방에 대한 ___을 최소화하고 ___을 최대화함.
___의 격률	자신에 대한 ___을 최소화하고 ___을 최대화함.
___의 격률	상대방과 자신의 의견 ___를 최소화하고 ___를 최대화함.

2. 협력의 원리를 이루는 격률

___의 격률	대화에서 ___의 ___만 전달함.
___의 격률	___한 근거를 바탕으로 ___이라고 생각하는 내용을 전달함.
___의 격률	대화의 ___과 ___에 맞는 정보를 제공함.
___의 격률	___하거나 ___적인 표현을 피하고 ___하고 조리 있게 말함.

4. 「차계기환」 / 「사씨남정기」 제재 개관

	차계기환	사씨남정기
갈래	___	국문 소설, ___ 소설
성격	___적, ___적	___적
소재	친구의 ___한 대접	___ 간의 갈등
주제	___한 대접에 대한 ___ 있는 지적	___ 간의 갈등과 사씨의 고행, ___

5. 「말을 걸어 봐요」 제재 개관

갈래	현대 ____
성격	____적, ____적
소재	_____ 문화
주제	_____인 ____ 문화의 가치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____적인 경험에서 ____의 가치를 발견함. • _____인 표현이 드러남.

6. 공동체의 담화 관습

우리말의 ____ ____	<ul style="list-style-type: none"> • ____하게 말하기: 직설적인 표현은 삼가고 _____으로 돌려 말함. • ____하게 말하기: 상대방에 대한 예의의 표시로 자기를 _____말함. • ____하게 말하기: 불필요한 말을 삼가고 _____내용만 말함. • ____과 ____: 상대방의 말을 가로채지 않고 ____까지 들되 ____한 내용만을 가려들음.
----------------------	---

↓

과거의 담화 관습을 바탕으로 오늘날의 언어생활을 ____하되 비판적으로 ____하여 오늘날의 사회·문화적 맥락에 맞게 ____해야 함.

7. 오늘날 우리의 담화 관습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

- ____을 존중하되, 타인을 ____하는 _____을 함.
- 상대방의 ____과 ____를 고려하여 ____하게 말하는 연습을 함.

8. 「말을 걸어 봐요」에 나타난 글쓴이의 경험

유년 시절의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릴 적 ____가 동네 아이들에게 ____을 건네는 모습을 보며 자랑. • 보따리장수들에게 _____를 베푸는 고향의 _____인 문화 속에서 ____해 옴. 	
성인이 된 이후의 경험	도시에서의 경험	시골에서의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엘리베이터에서 아이에게 말을 걸었으나 ____가 엄마 뒤로 숨자 _____을 느낌. • 몇 번 얼굴을 마주친 사람들에게 _____를 건넸으나 _____이 이어져 사는 게 _____고 느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골 마을을 유람했을 때, 버스 승객과 노인들이 _____을 걸고 _____을 주자 _____을 느낌.

9. 「말을 걸어 봐요」의 글쓴이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의사소통 문화

글쓴이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의사소통 문화



혼자 ____ 된 삶을 사는 것보다 ____ ____들과
끊임없이 ____하고 ____하며 서로의
____과 ____을 나누는 삶이 더 ____함.

나무아카데미 배포포포포

O / X 문제

【1~20】 「공동체와 의사소통」에 대해 제시된 설명이 적절하면 O, 아니면 X를 선택하십시오.

1. 협력의 원리에 따라, 정중한 표현을 사용하여 예절 바르게 말해야 한다. (O / X)

2. 관련성의 격률에 따라, 대화의 목적과 주제에 맞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O / X)

3. 공손성의 원리에 따라, 상대방이 부담스럽지 않게 선택권을 주는 것이 좋다. (O / X)

4.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강요하는 표현을 삼가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체면 유지의 원리라고 한다. (O / X)

5. 상대가 하는 말이 불필요한 말이라 할지라도 모두 경청하고 들어야 한다. (O / X)

6. 「차계기환」의 ‘김 선생’은 재치와 익살로 자신의 생각을 돌려 말했다. (O / X)

7. 「사씨남정기」의 ‘부인’이 유모를 통해 전한 말에는 ‘완곡하게 말하기’의 담화 관습이 드러나고 있다. (O / X)

8. 과거의 담화 관습을 모두 수용하여 오늘날의 언어 생활을 성찰해야 한다. (O / X)

9. 「말을 걸어 봐요」의 글쓴이는 이타적인 소통 문화의 가치를 말하고 있다. (O / X)

10. 글쓴이의 개성이 드러나는 글을 쓰면 자아의 성장과 언어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 (O / X)

1. X 2. O 3. O 4. O 5. X 6. O 7. X 8. X
9. O 10. O

고1
공통국어1
비상(박)

2027 고1 공통국어1 비상(박영민)
2(2) 공동체와 의사소통 복습 필기용 지문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복습 필기용은 선생님들께서 수업을 하실 때 학습용으로 쓰실 수 있습니다. 또는 학생 여러분이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나만의 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스스로 공부하고 이해한 것을 적용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이해를 점검하도록 하세요!

지문

[활동1] 대화의 원리를 고려하여 대화하기

1. 다음 대화를 살펴보고, 협력의 원리를 알아보자.

화성: 동희야, 너 축구 잘해?

동희: ㉠내가 전학 오기 전에 말이야. 학교에 유소년 축구 선수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내 실력을 인정해 줄 정도란다. 난 어릴 때부터 축구를 했어. 주말마다 축구 교실에 나가 꾸준히 연습을 했더니 축구를 아주 잘하게 됐지.

화성: 뭐야. 결론은 축구를 잘한다는 말이잖아. 조금 이따 축구 같이 할래?

동희: 좋아! 근데, 너 어제 축구부 입단 시험 본 건 어떻게 됐어?

화성: ㉡(일부러 못 들은 척하며) 내가 축구화를 어디에 두었더라?

동희: (화성의 어깨를 토닥이며) 다음에 기회가 또 있을 거야.

(1) ㉠에서 드러나는 말하기 방식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말해 보자.

(2) 다음 설명을 바탕으로 '동희'에게 조언할 말을 써 보자.

대화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서로 협력하며 대화하는 자세가 필요한데, 이를 협력의 원리라고 한다. 협력의 원리는 다음 네 가지의 격률로 이루어져 있다.

- 양의 격률: 대화에서 필요한 만큼의 정보만 전달하라.
- 질의 격률: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내용을 전달하라.
- 관련성의 격률: 대화의 목적과 주제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라.
- 태도의 격률: 모호하거나 중의적인 표현을 피하고 간결하고 조리 있게 말하라.

(3) 협력의 원리 중, ㉠에서 '화성'이 지키지 않은 격률과 그 의도를 말해 보자.

2. 다음 글을 읽고, 공손성의 원리를 고려하며 대화를 구성해 보자.

대화를 할 때는 언어 예절을 잘 지켜야 상대방과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대화의 원리로는 공손성의 원리가 있다. 공손성의 원리란 자신의 말이 상대방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예의 있게 말하는 태도를 말한다.

공손성의 원리에 따르면, 대화를 할 때는 상대방이 부담스럽지 않게 상대방에게 선택권을 주거나 자신의 탓으로 돌려 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대방을 비방하기보다는 칭찬하는 말을 하고 자신을 낮추어 겸손하게 말하되 상대방과 의견이 다르더라도 일단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 주고 나서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이 좋다.

- 박재현, 『국어 교육을 위한 의사소통 이론』

(1) ㉡와 ㉢의 대화 상황을 고려하여 공손성의 원리에 알맞은 말을 써 보자.

- ㉡ 친구에게 에어컨을 꺼 달라고 부탁하는 상황
- ㉢ 발표를 잘한다고 선생님께 칭찬을 받은 상황

(2) 공손성의 원리를 고려하여 다음 두 친구의 대화를 바꾸어 보자.

여학생: 정후야, 내일 별일 없으면 나랑 네 옷 좀 사러 가는 게 어때? 너는 맨날 너랑 안 어울리는 옷만 입는 것 같아. 옷이 그게 뭐야.

남학생: 싫어. 곧 시험인데 어딜 가냐? 난 집에서 공부할 거야. 너나 가.

3. 다음 만화를 보고, 체면 유지의 원리를 알아보자.

선배 선수: 애들아, 오늘 경기는 졌지만, 앞으로 남은 경기에 집중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힘내자!

후배 선수: 선배가 결정적인 순간마다 실수만 하지 않았어도 오늘 경기에서 이겼을걸요?

(1) 다음 설명을 참고하여 '선배'가 느꼈을 감정과 그 이유를 말해 보자.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바라는 자아의 모습을 인정받고 그것이 손상되지 않도록 지키기를 바라는데, 이것을 체면이라고 한다. 사람들은 자신의 체면을 존중받으면 자신감과 같은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지만, 체면이 손상되면 당혹감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느낀다. 그러므로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는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의 요청을 단칼에 거절하거나 잘못을 지적하는 등 상대방의 체면을 위협할 수 있는 말이나 행동을 되도록 피해야 한다. 이것을 체면 유지의 원리라고 하는데, 이 원리에 따르면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강요하는 표현을 삼가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 이창덕 외, 『화법 교육론』

(2) 체면 유지의 원리를 고려하여 후배 선수의 말을 바꾸어 보자.

핵심 정리

